

“손흥민, 전 세계 포워드 순위 6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29·토트넘)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선정한 전 세계 포워드 순위 6위에 올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SPN은 이날 전 세계 축구계를 대상으로 포지션별 상위 10명의 선수와 감독 순위 10위까지를 정해 발표했다. 손흥민은 포워드 부문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ESPN은 손흥민에 대해 “운동량이 탁월하고 수비 가담이나 동료 선수들의 공간 창출 능력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힘이 넘치는 움직임과 공격 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 반경 역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대표팀은 거의 (손흥민의) ‘원맨 공격’ 수준”이라며 “빠른 판단력에 기반한 골 결정 능력이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2019년에는 잉어 부문 5위, 2020년에는 포



▲ 손흥민, 사진=shutterstock

워드 부문 7위에 올랐고, 올해는 포워드 부문에서 한 계단 오른 6위가 됐다.

포워드 부문 1위부터 5위까지는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자리했다.

한편 손흥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별리그 이란과의 A조 4차전 원정경기 ‘원정팀의 무덤’ 아자디스타디움에서 한국 선수로는 2009년 박지성 이후 12년 만에 터트린 골이 2021년 대한축구협회(KFA) ‘올해의 골’ 후보에 올랐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서 올 한 해 최고의 골과 경기를 선정하는 팬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8일 마감된다.

“박지성은 시대를 앞서갔다...최고의 선수”

영국 현지 언론이 박지성의 활약을 재조명하며 그의 능력을 극찬했다.

2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전날 호날두가 압박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호날두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12년 만에 복귀했다. 호날두는 올 시즌 맨유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지만 압박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이 매체는 “퍼거슨의 맨유에선 압박이 수월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맨유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호날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수들이 있었다. 호날두는 어린 시절에도 압박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퍼거슨 감독은 호날두의 뛰



▲ 박지성, 사진=fr.besoccer.com

어난 공격 재능을 봤다.”며 당시 맨유 공격진들이 호날두의 뒷까지 압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것을 언급했다.

특히 “박지성은 단지 열심히 뛰는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지만 시대를 앞서간 선수”라며 “박지성이 현재 활약했다면 세계 최고의 시스템플레이어로 언급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박지성의 전술 이해도와 움직임에 대해 극찬했다.

맨유는 지난달 랑닉 감독을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1999-2000시즌 슈투트가르트(독일) 감독으로 부임하며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랑닉 감독은 그동안 하노버, 살케 등 다수의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을 맡았다. 랑닉 감독은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가운데 호날두와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트르담대 풋볼팀 신임 감독에 30대 한국계 내정



▲ 마커스 프리먼, 사진=노트르담대 홈페이지

전통의 강호 노트르담대 풋볼팀의 수비 코디네이터 마커스 프리먼(35)이 내정됐다.

프리먼은 지난달 29일 돌연 루이지애나주립대학(LSU) 행을 발표하고 자리를 떠난 브라이언 켈리(60) 감독의 뒤를 이어 130여 년 역사를 지닌 전통의 강호 노트르담대 풋볼팀을 이끌게 된다.

지난 12년간 노트르담대 풋볼팀을 맡아 이 대학 사상 최고 승률(70.2%), 최다승(98승) 기록을 쓴 켈리는 LSU로부터 10년 9천500만 달러와 별도 인센티브 조건을 제안받고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누가 후임에 오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CBS스포츠는 프리먼이 노트르담대 풋볼팀 사상 최연소 감독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리먼의 아버지는 1970년대 말 미 공군 소속으로 한국에 주둔해 있던 당시 한국인과 결혼했다. 프리먼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풋볼팀 코치로 일한 퍼듀대학의 스포츠 소식지는 지난 2015년 프리먼이 딸의 첫 번째 생일날 축하객 75명을 불러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의 전통문화에 따라 돌잔치를 해준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웨인고등학교 시절부터 풋볼 선수로 활약한 프리먼은 오하이오주립대학을 거쳐 2009 미국프로풋볼(NFL) 신인 드래프트에서 시카고 베어스에 지명됐다. 그러나 버펄로 빌스, 휴스턴 텍산스로 이적했다가 건강을 이유로 은퇴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켈트대학, 퍼듀대학, 신시내티대학 코치를 거쳐 올 시즌 시작을 앞두고 노트르담대 수비 코디네이터 겸 라인배커 코치로 영입됐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과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